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개막 | 총 135개팀 4361명 출전 '14일간의 열전'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 19일 막을 올렸다. ■1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막전에선 경북고와 진영고가 맞붙었다. 6회초 1사 2·3루서 경북고 우승우의 내야땅볼 때 3루주자 김준우가 홈으로 파고들어 세이프되고 있다. ■2 이번 대회의 홍보대사를 맡은 롯데 자이언츠 간판타자 이대호가 개막을 선언하고 있다. ■3 기장군 홍보대사인 가수 박구윤이 개막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기장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신개념 야구잔치' 실버·장애인팀도 함께 뛴다

홍보대사 이대호 등 2000여명 참석
중국·홍콩 사회인대표도 대회 출전
KBO 명예의 전당 프리뷰 상시 운영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신개념 야구 페스티벌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 마침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시 기장군이 주최하고 ㈜오투에스앤엠과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동아가 주관하는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개막식이 19일 오전 11시 기장군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오규석 기장군수,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양준호 회장, 대축제 공식홍보대사 이대호(롯데 자이언츠)와 부문별 선수단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오 군수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향후 한국 야구 산업뿐 아니라 야구와 관광산업이 결합된 스포츠관광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엘리트선수와 사회인야구, 그리고 일반 야구팬이 하나가 돼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축제는 메인프로그램인 기장국제야구대회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구성되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기장국제야구대회에는 리틀과 초·중·고·대학 엘리트선수들, 사회인야구팀, 실버팀, 여자야구팀, 장애인야구팀 등 총 135개팀 4361명이 참가해 부문별로 기량을 겨룬다. 평일에는 엘리트,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 위주로 경기가 펼쳐지고, 중국과 홍콩의 사회인야구 대표팀도 참가한다.

이대호를 비롯해 손아섭(롯데), 박용택(LG 트윈스), 서건창(넥센 히어로즈) 등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함께하는 야구선수 팬 포럼과 사인회, 그리고 베이스볼 스킬캠프도 열린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야구체험 프로모션인 'MLB로드쇼'도 축제 기간 상시 운영된다. 특히 현 메이저리거인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25일 오후 2시 MLB로드쇼 현장을 직접 찾아 팬 사인회도 열 계획이다.

또 KBO 명예의 전당에 전시될 기념품들을 미리 만나보는 '명예의 전당 프리뷰 쇼'도 상시 운영된다. 야구 산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야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야구발전포럼이 개최되고, 매드크라운, 슈퍼비, 리듬파워, 면도의 힙합 콘서트와 인기가수 BMK의 미니콘서트도 펼쳐진다.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과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www.gib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장 |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부산시, 명예의 전당 예산 재검토…기장군민들 분노"

오규석 군수가 목소리 높인 까닭

운영 맡기로한 KBO도 비협조적
이미 280억 투자한 기장군 답답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개막식이 열린 19일 부산시 기장군 현대차드림볼파크. 대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축제를 기장군이 세계적인 야구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축제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다 야구 명예의 전당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기장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KBO가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연은 이렇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제안 요청에 따라 2014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들과의 경쟁을 뚫고 KBO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기장군은 약 1850m²의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시는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명예의 전당이 건립되면 KBO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최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KBO도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 문제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 군수는 "이미 다 확정된 사안을 이제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기장군민들의 염원인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덧붙여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위해 기장군은 협약조건을 이행하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초 제안 요청한 부산시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특히 부산시의회 예결위가 협약 당사자인 기장군과 협의도 없이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총재와 사무총장 등 수뇌부가 바뀐 KBO가 운영비 부담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기장군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약 280억원을 투자(현대자동차 85억 포함)해 정규야구장 4면(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 1면과 국내 유일의 소프트볼장 1면을 조성하고 운영중이다. 또 2019년까지 약 12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실내야구연습장 및 야구체험관, 부설주차장, 광장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시의회와 KBO를 향해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장 | 김민성 기자

기장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경북고, 개막전 진영고에 콜드승

2학년 임종헌 3안타 3타점 "이승엽 선배처럼 되고싶다"

경북고 임종헌

경북고가 19일 부산 기장군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메인프로그램 국제야구대회 개막전에서 진영고에 13-5,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2학년생 5번타자 임종헌의 방망이가 빛을 발했다. 임종헌은 1회 2사 1·2루에서 우중간 2루타로 선제점을 뽑는 등 5타수 3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3회에는 내야안타로 출루해 2루 도루에 성공하는 등 빠른 발도 자랑했다.

올해로 야구를 시작한지 7년째인 임종헌의 주 포지션은 외야수. 진영고전에서도 좌익수로 선발 기용된 뒤 경기 중반 우익수로 자리를 옮겼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모자란 것이 많다"고 밝힌 그는 경북고 선배인 이승엽(현 KBO 홍보대사)을 떠올리며 "승엽 선배처럼 한국 야구를 빛내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기장국제야구대회 고등부는 11월에 열리는 만큼 이미 진로가 결정된 3학년보다는 1·2학년 선수들이 주로 출장하고 있다. "지난 9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협회장기 대회 이후 선발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힌 그는 "날씨도 춥지 않고, 게임 하기에 좋다. 우리 학교가 기장야구대축제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고 이준호 감독은 "종헌이가 2학년이라 올해 많은 게임을 뛰진 못했지만, 야구 센스가 좋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악바리 근성이 있다"며 칭찬했다. 기장 | 김도헌 기자

●주최 : 기장군
●주관 : 스포츠동아 ㈜오투에스앤엠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장군의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19일〉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모비스	15	12	3	0.800	0	4승
2	KT	15	9	6	0.600	3	2승
2	인삼공사	15	9	6	0.600	3	2패
2	LG	15	9	6	0.600	3	1승
5	전자랜드	16	9	7	0.563	3.5	1패
6	SK	15	8	7	0.533	4	2패
7	KCC	15	7	8	0.467	5	1승
8	DB	16	5	11	0.313	7.5	2패
9	오리온	15	4	11	0.267	8	2승
9	삼성	15	4	11	0.267	8	4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메이스	LG	28.2	① 박찬희	전자랜드	6.0	① 라건아	모비스	15.1
② 포스터	DB	26.8	② 루이스	오리온	5.9	② 할로웨이	전자랜드	14.7
③ 라건아	모비스	24.1	③ 포스터	DB	5.1	③ 메이스	LG	13.9
④ 브라운	KCC	23.6	④ 그레이	LG	4.7	④ 브라운	KCC	13.0
⑤ 컬페퍼	인삼공사	22.1	⑤ 로건	KT	4.2	⑤ 윌리엄스	DB	12.3

프로배구 〈19일〉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GS칼텍스	7	6	1	16	615	561	3승
2	흥국생명	8	5	3	15	678	657	2승
3	IBK기업은행	7	4	3	13	628	594	2승
4	인삼공사	8	4	4	13	703	674	3패
5	도로공사	8	4	4	11	747	771	1패
6	현대건설	8	0	8	1	566	680	8패

프로골프 〈19일〉

•PGA TOP10

RSM 클래식 최종라운드

① 하웰III(미국) -19	② 로저스(미국) -19	③ 심슨(미국) -18
④ 블렘(미국) -17	④ 리스트(미국) -17	⑥ 챔프(미국) -16
⑦ 율라인(미국) -15	⑦ 라이트(미국) -15	⑦ 존슨(미국) -15
⑦ 키스너(미국) -15	㊿ 임성재(한국) -10	㊿ 배상문(한국) -7

•LPGA TOP10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① 톰슨(미국) -18	② 코르다(미국) -14	③ 유소연(한국) -13
③ 린시컴(미국) -13	⑤ 리디아 고(뉴질랜드) -12	⑤ 주타누간(태국) -12
⑤ 알렉스(미국) -12	⑤ 시간다(스페인) -12	⑩ 김세영(한국) -9
⑮ 박세영(한국) -6	㉒ 이미향(한국) -3	㉗ 신지은(한국) -1

NBA 〈19일〉

•경기결과

샌안토니오	104-92	골든스테이트	LAL	113-97	마이애미
멤피스	100-87	미네소타	올랜도	131-117	뉴욕
포틀랜드	119-109	워싱턴			

NHL 〈19일〉

•경기결과

댈러스	6-2	뉴욕I	캐롤라이나	2-1	뉴저지
시카고	3-1	미네소타	베가스	6-3	에드먼턴
콜로라도	4-3 〈연장〉	애너하임			

아마추어 경기결과 〈19일〉

펜싱 ●2018 FIE 알제리 사브르 국제 월드컵(알제리 알제) •남자 단체전 결승전=한국 45-31 러시아

빙상 ●2018-2019 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5차 대회(러시아 모스크바) •프리스케이팅 여자 싱글 순위=① 자기토바(러시아), ② 사모두라노바(러시아), ③ 임은수(한국) •여자 싱글 종합 순위=① 자기토바(러시아), ② 사모두라노바(러시아), (동) 임은수(한국)

경기 예고

프로농구 〈20일〉

•2018-2019 SKT 5GX KBL

KCC 〈전주실내〉 인삼공사
오후7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삼성 〈잠실실내〉 KT
오후7시30분, IB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2

프로배구 〈20일〉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천안유관순〉 OK저축은행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0일〉

농구 ●2018 KUSF 대학농구 U-리그(서울, 오후5시)

골프 ●2019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무안, 오전9시)